

대학생의 사회불안 감소를 위한 비대면 집단인지행동 치료의 개발 예비연구*

구 미 영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박사과정

교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언택트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비대면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집단 인지행동치료를 진행하면서 외부전환 주의집중 기법과 비디오 피드백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 점수에서 절단점 이상으로 나타난 1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집단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고, 사회 불안 증상, 회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를 치료 전, 치료 후, 2개월 추후 평가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비대면 집단 인지행동치료동안 사회불안 증상, 회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 성향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런 치료효과는 종결 후 2개월 추후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사회불안 대학생 대상의 집단인지행동 치료는 비대면적 개입에서도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제한점, 추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불안, 비대면 집단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비디오피드백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봄학술대회에서 “사회불안 대학생을 위한 비대면 집단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부적응적 자기초점 주의성향 변화 연구”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된 바 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원영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 Tel : 041-730-5414 / Fax : 041-730-5416 / E-mail : 1058@paran.com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학상담센터 역시 전통적인 상담 방식인 대면 방식을 벗어나 비대면 개인 상담, 비대면 집단상담, 비대면 워크숍 등의 개입방법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상담자와 내담자가 실시간 화상상담을 통해 집단상담을 실시한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대학생 대상의 비대면 집단상담을 활용하여 이야기치료(오윤석, 조은숙, 2020), 마음챙김(차남희, 김희수, 2020) 등의 효과 연구를 실시한 정도이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전환기로 개인의 과업 성취에 중요한 시기이다.

사회불안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되고 평가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현저한 공포나 불안을 지니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심하게 긴장하고 불안감을 느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기회를 스스로 제한한다. 사회불안의 인지적 과정 변인에는 초기 부적응 도식, 역기능적 신념, 자기효능감, 평가염려, 자기초점적 주의 등이 있다. 그 중, 자기초점적 주의를 개인의 주의 대상을 자기로 삼는 내부 지각적인 형태로 자신의 생리적 각성 상태 사고, 정서, 행동 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회불안의 유지와 악화에 중요한 요인이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자기초점주의는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관이 있고(Hope, Heimberg, Zollo, Nyman & O'Brien, 1987), 평가가 예상되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사회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기 초점주의가 증가한다(Mansell, Clark, & Ehlers, 2003). 또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가 예상되는 부적응적 자기 초점주의 수준이 사회불

안과 정적 상관관을 보인다(Brockmeyer et al., 2015). 이 때, 주의를 외부로 돌리는 주의 초점 전환은 단순 노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다(Wells, 1998).

인지행동치료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부정적 자아상, 판단편향, 자기초점적 주의 등에 대하여 노출 및 비디오 피드백을 통한 행동적 개입을 통해 사회불안의 정도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었다(안정광, 2017). 본 연구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외부전환 주의집중 기법을 활용하여 부적응적 자기초점주의의 감소에 유효한지를 검증하여 향후 비대면 상황에서의 개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예비연구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은 사회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비대면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은 자기초점주의, 회피, 부정적인평가에 대한 두려움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들은 대학교 학생 상담센터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안내문과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받았고, 신청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신청한 사람들 중 Watson과 Friend(1969)의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ADS) 척도에서 절단점 64점 이상으로(이정윤, 최정훈, 1997) 나타난 학생을 선별하였다. 전체 참여자는 남자 2명, 여자 12명으로 총 14명이었다. 나이는 만 18세부터 만 26세로 평균

연령은 22.7세였다. 참가자들에게는 연구에 활용한다는 설명과 함께 동의를 받았고 추수 검사를 마친 시기에 커피쿠폰을 제공하였다.

측정도구

비대면 집단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 및 두려움을 측정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 Clarke, 1998; 최병희, 2007)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었다. 둘째,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혐오적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 Watson & Friend, 1969; 이정윤, 최정훈, 1997)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9이었다. 셋째,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단축형(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FNE; Leary, 1983; 이정윤, 최정훈, 1997)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넷째, 이지영과 권석만(2005)이 개발한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SDSAS) 중 자기몰입(부적응적 자기초점 주의) 영역에 해당되는 21문항이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6이었다.

프로그램 개발 절차

프로그램은 다음 3단계를 통해 개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회불안 장애의 특성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노출 및 비디오 피드백의 과정에서 외부전환 주의집중훈련을 통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에게 부적응적 자기 초점을 감소시키면서 사회불안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회기계획으로 2시간씩 총 5회기로 구성하였고, 안정광(2017)이 개발한 사회불안 장애 모델을 중심으로 하여 외부전환 주의집중훈련과 비디오 피드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3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 선정에 대한 임상심리전문가 1명과 상담심리학 교수 1인의 자문을 받고 수정 보완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내용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학사운영기간 및 치료효과와 집단원들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적합하게 하기 위해 주 1회 2시간씩 총 5회기로 구성하였다. 1회기는 치료목표를 확인하고 심리교육을 진행하였다. 심리교육의 내용은 사회불안장애의 증상 및 원인, 부정적 자아상, 자기초점적 주의, 판단편향과 같은 사회불안 유지기제 등이다. 2회기는 초기탐색을 통한 이미지 재구성과 주의를 외부로 전환하는 주의집중 훈련을 하였다. 발표주제를 준 후 3분 발표를 비디오 촬영하였고 모두 발표를 마친 후 구성원과 함께 비디오 피드백을 하며 자기초점주의를 확인하고, 부정적 자기상을 개선하는 훈련을 하였다. 3회기는 비디오피드백에서 안전행동을 확인하였고, 과제로 거울 피드백을 할당

하였다. 4회기에는 과제 점검과 더불어 회기의 비디오피드백에서는 안전행동을 하지 않고 발표하기를 실시하였다. 5회기는 집중적으로 노출 및 비디오 피드백을 2회 진행하면서 부정적 자아상, 자기초점적 주의의 감소에 대한 집단원의 모습을 관찰하고 변화된 모습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면서 마무리 하였다.

자료분석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하였다. 비대면 사회불안 집단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치료를 시작하기 전, 5회기 치료 종결 후, 추후검사(2개월 후)에 대한 시점과 주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사전-사후, 사후-추수 2개월, 사전-추수 2개월에 대한 t-test검정을 통해 사후검증을 하였다. 또한 각 변인의 변화량에 대하여 Spearma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사회불안 장애 비대면 인지행동 집단 치료의 사회불안 증상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치료 전, 치료 후, 치료 종결 2개월 후 사회불안 증상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된 요인들에 대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최소값이 .17 최대값이 1.16으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최소값 .30, 최대값 .75로 나타나 정규성 특성

을 만족하였다. 구형성 검정을 진행하였고 분석결과 Mauchly의 W가 .8 이상이고, 유의확률이 .05이상이므로 구형성 가정에 적합하였다.

참가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F(1,13) = 4.06, p < .01, \eta^2 = .40$, 사전-사후의 $t(14) = 2.68$, 사후-추수(2개월)의 $t(14) = -3.66$ 로,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은 $F(1,13) = 3.81, p < .001, \eta^2 = .53$, 사전-사후의 $t(14) = 2.32$, 사후-추수(2개월)의 $t(14) = -.81$ 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F(1,13) = 15.44, p < .001, \eta^2 = .54$, 사전-사후의 $t(14) = 4.93$, 사후-추수(2개월), $t(14) = -1.24$ 로,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은 $F(1,13) = 6.93, p < .01, \eta^2 = .53$, 사전-사후의 $t(14) = 3.66$, 사후-추수(2개월)의 $t(14) = .19$ 로 나타나며, 모두 사전 측정에 비해 사후 및 추후에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표 1).

사회불안의 변화가 부정적 자기초점적 주의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pearma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변화는 추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추후-사전 $r = .54, p < .05$) 및 자기초점적 주의의 변화(추후-사전 $r = .60, p < .05$)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의 변화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와 사후(사후-사전 $r = .57, p < .05$), 추후(추후-사전 $r = .65,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논 의

이 연구는 사회불안이 있는 대학생 대상의 비대면 집단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고 변화

표 1. 치료기간 동안 사회불안 증상 및 부정적 자기초점주의의 변화($n=14$)

	Pre (a) M(SD)	Post (b) M(SD)	Follow (c) M(SD)	F	η^2	paired-t Post-hoc
SIAS	2.85(.63)	2.14(.92)	2.21(.72)	4.06**	.40	a > b,c
SADS	3.53(.53)	3.0(.70)	3.14(.45)	3.81***	.53	a > b,c
B-FNE	4.17(.46)	3.17(.77)	3.35(.69)	15.44***	.54	a > b,c
SDSAS	3.35(.81)	2.78(.80)	2.75(.77)	6.93**	.53	a > b,c

주 1. SIAS=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ADS=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BFNE=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DSAS=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 $p < .01$, *** $p < .001$

표 2. 사회불안과 부정적 자기초점주의 변화량에 대한 Spearman 상관($n=14$)

	Post - pre		Follow up - pre	
	Δ BFNE	Δ SDSAS	Δ BFNE	Δ SDSAS
Δ SIAS (post-pre)	.48	.04	Δ SIAS (f/u-pre)	.54*
Δ SADS (post-pre)	.57*	-.24	Δ SADS (f/u-pre)	.65*

* $p < .05$

를 측정하였다.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인지행동 집단 치료에서의 각 변인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석해본 결과, Effect size η^2 값이 이전의 다른 연구들에서 큰 효과라고 알려진 .14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정광(2018)의 연구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 크기가 .36인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효과 크기는 .54, 부정적 자기초점주의의 효과 크기는 .53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치료 종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시된 추수검사에서도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을 사용한 사회불안에 대한 개입이 대면 집단을 통한 개입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보였던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Andrews, Davies, &

Titov, 2011)로, 집단원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진행된 외부 전환 주의집중 훈련을 통해 더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여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대면상담이 자기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음을 언급한 오윤석(2020)의 선행연구를 고려한다면 화상상담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에 더 편하고 집중도 잘되는 점과 더 높은 상담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외부전환 주의집중 훈련, 비디오 피드백을 통한 객관화 훈련 등은 왜곡된 주의초점을 보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기초점적 주의의 감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하였고, 비대면 상호작용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효과성에 부가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치료의 목표로 삼았던 부정적 자기초점주의의 변화는 사회불안의 변화와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는 주의집중이 몰두를 증가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문경림, 1997),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희나, 2013)와 일치한다. 또한, 비디오 피드백을 통해 수정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초점적 주의는 사회불안의 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이라는 상황이 주는 심리적 편안함은 안전한 노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원들은 비대면 접속이 가능한 다양한 장소에서 회기에 참여하며 외부전환 주의집중을 통해 초점을 자신에서 외부로 주의를 전환하는 것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부정적 자기초점주의 변화는 중요한 치료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다만 자기초점주의의 변화는 추후 2개월 후까지 원점수도 유지되었으나 다른 변인들은 사후검사보다 점수가 경미하나 상승함을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기초점주의 이외에도 사회불안의 저하를 유지시킬 수 있는 변인을 추가적으로 발견하여 효과를 더 확실하게 지속시키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의 절단점을 통해 연구대상을 선별하였으나 대학교 재학생들로 국한되어 있어 일반화하는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성 여부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비대면 치료를 위한 예비연구로 다른 종류의 치료를 받은 대조집단, 통제집단이 없었

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기자 집단이나 다른 유형의 치료를 비교 조건으로 사용하여 비대면 인지행동치료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 도구들이 모두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관찰된 제3자의 평정이 추가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로 인해 비대면을 활용한 심리적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장면에서 집단치료가 가능하고, 효과를 검증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외부전환 주의집중 훈련을 통해 자기초점이 감소하였고, 비디오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불안장애의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예비연구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문경림 (1997). 명상이 아동의 주의집중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광 (2017).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강화된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 검증 및 치료 기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오윤석, 조은숙 (2020). 화상회의방식을 활용한 이야기치료 온라인 집단상담의 효과 특성 연구: 대면 집단상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6(4), 401-409
-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251-264.
- 차남희, 김희수 (2020).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비대면 마음챙김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5(2), 41-61.
- 최병휘 (2007). 사회공포증의 인지행동집단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최희나 (2013). 고등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ndrews, G., Davies, M., Titov, N. (2011). Effectiveness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face to face versus internet cognitive behaviour therapy for social phobia. *Australia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5, 337-340
- Bögels, S. M., & Lamers, C. T. J. (2002). The Causal Role of Self-awareness in Blushing-anxious, Socially-anxious and Social Phobic Individual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12), 1367-1384
- Brockmeyer, T., Zimmermann, J., Kulesa, D., Hautzinger, M., Bents, H., Friederich, H. C., & Backenstrass, M. (2015). Me, myself, and I: Self-referent word use as an indicator of self-focused attention in relation to depression and anxiety. *Frontiers in psychology*, 6, 1564.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Hope, D. A., Heimberg, R. G., Zollo, L. J., Nyman, D. J., & O'Brien, G. T. (1987, November). *Thought listing in the natural environment: Valence and focus of listed thoughts among socially anxious and nonanxious subjec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 Leary, M. R.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3), 371-375.
- Mansell, W., Clark, D. M., & Ehlers, A. (2003). Internal versus external attention in social anxiety: An investigation using a novel paradigm.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5), 555-572.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4), 448-457.
- Wells, A., & Papageorgiou, C. (1998). Social phobia: Effects of external attention on anxiety, negative beliefs, and perspective taking. *Behavior Therapy*, 29(3), 357-370.

원고접수일 : 2021. 08. 04.

수정원고접수일 : 2021. 11. 11.

게재결정일 : 2021. 11. 18.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n-face-to-face group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o reduce social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Mi Young Koo

Graduate Student

Wonyoung Song[†]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The spread of Covid-19 has increased the need for non-face-to-face(non-FTF) intervention for psychological difficulties has increased, especially with social distancing. This study aim to inspect the effect of non-FTF group cognitive-behavioral therapy on reducing social anxiety in university students through external conversion attention techniques and video feedback. The intervention changed the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al disposition through decentralization and video feedback. The non-FTF group CBT program was provided to 14 university students who showed social avoidance and discomfort scale scores higher than the cut-off point, social anxiety symptoms, avoidanc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maladaptive self-focus. Assessments were performed before, after, and two months after the end of the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social anxiety symptoms, avoidance, fear of negative evaluations, and maladaptive self-focusing tendencie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in the non-FTF group. This treatment effect was maintained two months after termination at the same level as at the evaluation. These results verified that group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socially anxious university students is effective even in non-FTF interventions. Basis of the research result,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Key words : social anxiety, non-face-to-face group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program, video feedback

[†] Corresponding Author : Wonyoung Song / Dept. Counseling &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 121 Daehangno Nonsan, Chungnam / Tel : 041-730-5414, Fax : 041-730-5416, E-mail : 1058@paran.com.